

『제이콥의 방』에 나타난 애도와 치유의 서사

진 명 희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목소리에 대한 탐색과 애도
- III. 정화의식과 치유
- IV.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세 번째 장편소설인 『제이콥의 방』(*Jacob's Room*)(1922)은 형식상으로는 제이콥이라는 주인공의 성장과 죽음을 다룬 교양소설이다.¹⁾ 그러나 이 작품은 기존의 성장소설과 달리 주인공의 ‘성격’에 대해서 알려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의문투성이의 인물로 만들고 있는 반성장소설이다. 『제이콥의 방』에서 울프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방, 즉 주인공이 차지하는 공간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된 주변 인물들의 반응과 일상사를 통하여 주인공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의 방으로 독자를 인도함으로써 환영과 실제의 구분마저 거부하며 모든 것을 불확정한 세계로 환원시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해체주의적 입장에 선 비평가들은 이 작품을 데리다(Derrida)식 의미의 차연, 유예, 주체의 와해 등의 문맥에서 분석한다. 대표적으로 데리다에 의존하여 의미에 대한 보편적인 의구심을 읽어내는 미노우-핑크니(Minow-Pinkney)는 울프가 『제이콥의 방』에서 “초월적 의미의 승리가 더 이상 가

1) 크리스틴 프라우라(Christine Froula)는 『출항』(*The Voyage Out*)과 『제이콥의 방』을 젊은 주인공들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자매편(*companion pieces*)으로 규정한다(64).

능하지 않다는 인식”(38)과 “총체성의 불가능성”(50)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존 메팜(John Mepham)이 지적하듯이 『제이콥의 방』은 우리가 어떤 인물을 온전하게 안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강조하는 소설로써, 작품 자체가 인물의 범주화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Life* 89). 메팜은 『제이콥의 방』을 일반적인 유대와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파편적인 서사와 시적인 산문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모더니즘 소설의 전형으로 본다.

어떤 장소에 대한 감각, 어떤 특정 장소와 세대 가운데 뿌리박고 있다는 느낌을 통하여 과거와 연결될 수 있다면, 공감적 상상력을 통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다면, 또한 우리들 가운데 낭만적인 열정과 현실의 평범한 요구를 연결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온전하고 이해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형태의 삶을 부여하는 연결고리들을 『제이콥의 방』은 거부하고 있다.

Life can be made whole and intelligible if we connect to the past through a sense of place, of having roots both in a locality and in the generations, if we connect with one another by imaginative sympathy, and if we connect within ourselves the romantic passion and the prosaic demand of reality. All of these forms of life-giving connection are denied by *Jacob's Room*. (*Literary Life* 78)

여기서 메팜이 지적하고 있는 과거와의 단절감, 현실에서의 일탈의식은 사실 전쟁을 경험한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가들, 특히 울프나 엘리자베스 보웬(Elizabeth Bowen)과 같은 여성 소설가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크리스틴 프라우라가 지적하듯이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들은 호머의 영웅적인 전쟁서사가 허구이자 거짓임을 들춰내는데 열중했다(66-7). 과거와의 연대감과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새로운 삶의 모습을 담아낼 새로운 소설 형식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한 인식은 울프 자신의 글에서 자주 드러난다.²⁾

2) “The Mark on the Wall” (1917), “Modern Fiction” (1919), “An Unwritten novel” (1920), “Mr. Bennett and Mrs. Brown” (1924)과 같은 단편/스케치와 에세이들에

울프는 1927년 8월 14일자 『뉴욕 헤럴드 트리뷴』(*New York Herald Tribune*)지에 다분히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를 염두에 두고 쓴 에세이 「예술이라는 협교」(“The Narrow Bridge of Art”)를 기고했다.³⁾ 이 글에서 울프는 “항상 감정의 확증을 원하는 현대적 정신은 사물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 같다”(223)고 현대인들의 ‘회의적이며 의심쩍어하는 정신’에 비판적으로 주목한다.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하여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현대인들의 인식의 변화는 기존의 기계적인 시간과 공간개념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이어지는 울프의 주장을 들어보자.

매순간은 지금까지 표현된 적이 없는 엄청나게 많은 지각들의 중심이자 만남의 장소이다. 삶은 항상 그리고 필연적으로, 삶을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우리들 보다 훨씬 풍부한 것이다.

Every moment is the center and meeting-place of an extraordinary number of perceptions which have not yet been expressed. Life is always and inevitably much richer than who try to express it. (“The Narrow Bridge of Art,” 229)

「베넷 씨와 브라운 부인」이란 에세이에서 ‘무한한 능력과 다양성’(119)을 지닌 브라운 부인은 우리의 ‘정신, 즉 삶 그 자체’(119)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진실하게’(118) 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듯이(“Mr. Bennett and Mrs. Brown,” 118-19), 표면 속에 감춰진 진실한 삶, 실재의 본질을 추구하는 울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파편화된 정서와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인식을 표현할 새로운 태도를 지닌 작가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녀에 따르면 “앞으로 쓰여질 소설은 다소 시의 속성을 띠게 될 것이고 ...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결집체의 모형, 즉 현대인의 정신을 취하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자유, 두려움 없음,

서 울프는 과열이며 죽음과 같은 에드워드조 리얼리즘 작가들의 서술기법에 강하게 반대하며, 문학적 모더니즘의 주창자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보여준다.

3) 현대소설의 탁월함을 옹호하는 선도자로서 울프를 자리매김하는 에세이들 중 하나로 처음에는 “Poetry, Fiction, and the Future”라는 제목으로 발표됨.

융통성과 같은) 민주적인 산문예술의 소중한 특권을 꺼안게 될 것이다”(“The Narrow Bridge of Art,” 225-26).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울프가 『제이콥의 방』과 관련한 새로운 모더니즘 소설을 특징지으며, 현대인의 혼란스런 정신의 상징인 미로의 이미지, 방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새로운 소설을 프루스트와 도스토옙스키의 중얼거림, 속삭임만이 들리는 문 뒤에 서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산문예술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이콥의 방』에서 방이라는 상징적 공간은 주인공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복화술적인 목소리들을 위한 메타포이다. 반향하는 목소리들과 반사하는 거울들로 구성된 작품공간에서 울프는 에드워드조의 잘 짜인 플롯과 인물묘사를 거부하며 파편적인 서사를 전개한다. 즉 과거와의 단절을 주장하는 울프의 모더니즘적 글쓰기는 과거에 대한 비판적 애도를 포함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이콥의 방』은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제이콥에 대한 애가이며 동시에 비록 완전한 결별은 아니지만, 과거 문학전통에 대한 작가의 이별가이자 애가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울프가 ‘발판은 고사하고 벽돌 한 장도 보이지 않는’(Diary, 22) 소설쓰기를 ‘모색하고 실험한’(Diary, 22) 작품 『제이콥의 방』을 통해, 모더니즘 글쓰기로써 내면의식의 방을 떠도는 목소리에 관한 새로운 글쓰기를 탐색하며 애도와 치유의 서사를 보여주고 있음을 연구한다.

II. 목소리에 대한 탐색과 애도

『제이콥의 방』에서 제이콥이라는 존재를 두고 멀리 혹은 가까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목소리는 제이콥의 내면의식을 반영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작품에서 복화술적인 목소리의 난무는 작품의 의미의 불확정성과 관련하여 흥미롭다. 테리다가 말하는 기표와 기의가 일치하지 않고 의미의 간극을 생성하며 끊임없이 자유 유행하는 기표들처럼, 제이콥과 관련된 여러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언되는 목소리들은 결코 제이콥이라는 존재를 밝혀주지 못한다. 크리스천 알트(Christian Alt)의 지적처럼 “작품 내내 등장인물들은 그들로 하여금 제이콥을 알게 해 줄 대답을

듣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차서 제이콥을 부르지만, 그들의 부르름에는 대답이 없다. 제이콥의 성격에 대한 문제는 그가 죽는 시점에도 해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101). 대답 없는 목소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제이콥의 방』은 『출항』에서 소설가를 꿈꾸는 테렌스 휴잇(Terence Hewet)이 갈망하는 “침묵에 관한 소설”(a novel about Silence)(262)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 흥미롭게도 제이콥은 등장인물들 중 한 사람에 의해 “그 말없는 젊은이”라고 묘사되는데,⁵⁾ 단절적이고 파편적인 대화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강조점은 주인공 제이콥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말없는 생각에 맞춰져 있다(N Takei da Silva 200).

정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공중을 배회하는 유령 같은 목소리에 대한 관심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정신과 온전한 일체감을 상실한 현실을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의 상실과 의미의 불확정성을 『제이콥의 방』이 담지하고 있다고 일부 비평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사실 울프 자신이 과거로부터 온 사자의 목소리에 시달리고 있었음은 여러 곳에서 목격된다. 그녀는 미완성 자서전인 “과거에 대한 소묘”(A Sketch of the Past)에서, 자신은 13세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에 44세가 될 때까지 사로잡혀 있었으며 태비스톡(Tavistock) 광장을 거닐다가 문득 『등대로』(To the Lighthouse)를 구상하여 집필을 시작하였는데, 이 작품 이후 어머니의 목소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A Sketch of the Past,” 80-81). 과거로부터 회귀한 목소리에 대한 울프의 정신 상태는 남편 레너드(Leonard)의 회고에서도 확인된다. 그에 따르면 “울프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예를 들면 그녀는 창문 밖 참새들이 그리스어를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Leonard Woolf 148). 자신의 머릿속에 떠다니던 목소리에 대한 울프의 강박적 경험은 『댈러웨이 부인』(Mrs. Dalloway)에서 셉티머스(Septimus)의 환상을 통해서 구체화 된다. 전사한 친구 에반스(Evans)의 목소리에 시달리고

4) 제이콥을 ‘기념비로서 인물’(Character as Cenotaph)이라고 명명하는 마크 허쉬(Mark Hussey)는 『제이콥의 방』에서 울프가 ‘부재의, 침묵의 위대한 소설가’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Hussey 17).

5) Virginia Woolf, *Jacob's Room*, Intro & Ed. Sue Roe (Harmondsworth: Penguin, 1992), 49. 앞으로 작품 인용은 이 판본에 의하며, 페이지는 인용문 뒤의 괄호 안에 병기함.

있는 그는 “참새들이 길고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그리스어로 노래한다”(24)고 생각한다. 이처럼 유령처럼 떠도는 이름 없는 목소리들은 『제이콥의 방』에서 복화술사처럼 다양한 목소리의 등장으로 구체화되며 그 목소리들이 확고한 의미의 영역에 안착하거나 제이콥의 성격을 밝혀주지 못하는 점에서 '의미의 부재'를 확인시켜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체론적 해석은 『제이콥의 방』이 함축하고 있는 직접적으로는 제이콥의 죽음, 간접적으로는 현재에 떠돌고 있는 과거의 유산, 에드워드 시대 소설 양식의 잔재에 대한 제의적 평화의식을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한계를 지닌다. 앞서 지적했듯이 올프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위치에 다시 한 번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자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태도를 재정립하려고 노력하는 일군의 작가들이 ... 영국과 프랑스, 미국에 흩어져 있음이 확실하다”(“The Narrow Bridge of Art,” 229)고 생각한다. 새로운 소설양식을 추구하는 이들 모더니즘 작가들에게는 ‘잘 짜인 구성과 인물묘사’를 보여주는 과거 빅토리아 시대 소설 양식의 유령에서 벗어나게 해 줄 정화의식이 필요하며, 이 정화의식이란 바로 애도이다. 이러한 정화 의식은 단지 작가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프라우라가 지적하듯이 독자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삶과 죽음을 목격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삶을 구원하는 글읽기로 이어진다(64).

본 논문에서 살펴보려는 바와 같이, 과거와의 의식적인 단절을 지향하는 올프의 모더니즘은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든 애도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아마도 내가 글쓰기를 통해서 고통을 제거하기 때문에, 글쓰기는 나에게 절단된 조각들을 조합하는 커다란 기쁨을 준다”(“A Sketch of the Past,” 72)는 올프의 말처럼, 『제이콥의 방』은 전쟁에서 일찍 희생된 제이콥에 대한 제의적 애도일 뿐만 아니라 제이콥의 실제 모델이 되고 있는 그녀의 오빠 토비 스티븐(Thoby Stephen)에 대한 애가이기도 하다.⁶⁾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격

6) “[JR] can be read as an elegy for Woolf’s much-loved brother Thoby” (Flint xviii). 레너드 올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비평가들(Kate Flint, N.T. Bazin, A. Fleishman, J.O. Love, Sara Ruddick, Christine Froula 등)이 제이콥을 토비 스티븐으로 보는 것과 달리, 하이디 스텔라(Heidi Stalla)는 일단 제이콥을 유대인 이름으로 본다면 사실상 제이콥이 레너드 올프와 유사성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제이콥의 방』과 레너드 올프의 『현명한 처녀들』(*The Wise Virgins*)의 유사성을 비교한다.

적으로 새로운 형식의 모더니즘 소설을 쓰겠다고 다짐하는 작가 자신의 과거 문학 전통에 대한 단절과 과거에 대한 개인적 애가의 성격도 지닌다. 이 애가는 전원 목가시의 형태를 취하면서 친구인 에드워드 킹(Edward King)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경직된 종교적 현실을 비판하는 존 밀턴(John Milton)의 애가 「리시다스」(Lycidas)처럼 제이콥의 죽음을 가져온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현실과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애가가 아니라 ‘풍자적 애가’이다. 울프의 애가는 현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노와 전쟁과 같은 폭력에 기초한 유럽문명에 대한 환멸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그녀의 애도에 찬 글쓰기는 일종의 치유적인 성격을 지닌다. 『제이콥의 방』에서 화자의 서술이 제이콥의 죽음과 함께 끝난다는 점이 이를 암시한다. 프라우라도 적절히 지적하듯이 모더니즘 작가들 중에서도 에즈라 파운드(Pound)나 T. S. 엘리엇(Eliot)의 보다 신랄하고 우울한 문명애도와 달리 울프는 애도를 뒤로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일종의 “단속적인 광시곡”(disconnected rhapsody)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81).

III. 정화의식과 치유

전체 14장으로 회귀적인 구성을 지닌 『제이콥의 방』은 첫 시작부터 죽음의 그림자나 죽음의 상징이 가득하다. 먼저 주인공 제이콥 플랜더스(Jacob Flanders)의 이름에서 언급되고 있는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은 울프 당대의 영국인들에겐 30만 명 이상의 영국 젊은이들이 죽은 전장이다. 존 맥클리(John McCrae)의 시 “플랜더스 전장에서”(In Flanders Fields)는 이들 젊은이들의 죽음을 기리는 애가이다.

레너드의 동생 세실(Cecil) 또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하였으므로 이 소설이 그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언급한다(Stalla 220-25).

플랜더스 전장에서 양귀비꽃들은
십자가들 사이에서 줄줄이 나부끼고 ...
우리들은 사자들이다. 불과 며칠 전
우리들은 살아 새벽을 느꼈고, 물든 석양을 보았으며
사랑하고 사랑받았지만, 이제는
플랜더스 전장에 묻혀있다.

In Flanders fields, the poppies blow
Between the crosses, row and row ...
We are the Dead. Short days ago
We lived, felt dawn, saw sunset glow,
Loved and were loved, and now we lie
In Flanders fields. (Zwerdling 64 재인용)

이미 그 이름 자체로 전쟁의 상흔과 죽은 자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제이콥은 어머니와 형을 따라 놀러 나온 콘월의 바닷가에서 누런 큰 이빨이 남아 있는 양의 턱뼈를 집어 든다. 셋집에다 이런 물건을 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머니 베티(Betty)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이콥은 고집스럽게 죽음의 잔해를 곁에 두는 수집가적인 기백을 보인다. 이것은 그가 나무와 곤충을 채집하고 분류하는 취미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미 어린 시절부터 바닷가 검은 바위에 오르면서 “어린 남자아이가 보폭을 넓게 뻗치면서 꼭대기에 오르기도 전에 자신이 영웅이나 된 듯한 기분을 느끼는”(5) 남성적 소유욕과 정복욕의 반영이다. 흥미롭게도 제이콥은 성적인 욕망과 죽음을 잠재의식적으로 연결시킨다. 그는 해안에 나란히 누워 사랑을 나누는 몸짓이 거대한 남자와 여자가 붉은 얼굴로 노려보자 두려움에 질려 도망치며, 공포로 인한 혼란스런 정신상태에서 바위를 덩치 큰 흑인여자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에게 성적 욕망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보여줄 젊은이의 여성 편력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려는 일종의 ‘정복욕’의 산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그는 죽음과 늘 함께하는 것이다.

바닷가에서 혼자 떨어져나간 동생 제이콥을 부르는 형 아처(Archer)의 “제이콥-! 제이콥-!”이란 외침에는 대답이 없다. 이 외침은 작품 마지막에 제이

콥의 친구인 동성애자 보나미(Bonamy)가 제이콥의 빈 방에 찾아와서 외치는 “제이콥! 제이콥!”으로 연결된다. 이곳에서도 역시 죽은 제이콥은 대답이 없다. 10년이나 연상인 작품 속 화자의 아래와 같은 표현 또한 이와 관련되며, 작품의 시작과 끝에서 제이콥을 부르는 외침은 이미 대답 없는 목소리, 죽은 자를 불러내는 살아있는 자들의 절규처럼 들린다.

‘제이콥-! 제이콥-!’ 잠시 후 뒤처져 천천히 걸으며 아처가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비상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온몸으로 순수하게, 온갖 열정을 다해 순전하게 세상을 향해 외치는, 외롭고, 대답 없는,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 그런 소리로 들렸다.

‘Ja-cob! Ja-cob!’ shouted Archer, lagging on after a second.

The voice had an extraordinary sadness. Pure from all body, pure from all passion, going out into the world, solitary, unanswered, breaking against rocks - so it sounded. (4)

이 애상적인 어조와 분위기는 시종일관 작품 전체를 지배한다. 한창때에 세 아들과 함께 과부가 되어 지금은 사십대 중반인 베티 부인은 죽은 남편 씨브룩(Seabrook)을 회상하며 과거에 얽매어있다. 그녀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전역한 바foot 대령(Colonel Barfoot)에게 눈물 젖은 편지를 보낼 뿐이며, 자신보다 젊은 플로이드(Floyd)씨의 구애를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그녀는 남편의 비석에 사실상 남편의 직업과는 무관하게 ‘이 도시의 상인’이란 호칭을 새겨주었다. 여기서 울프는 죽은 자들을 미화하고 심지어 영웅시하며 죽은 자들이 현실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 전통적인 애도 방식을 강하게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베티가 닭에게 모이를 주며 예배나 장례식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상기하는 것은 “씨브룩의 목소리 - 죽은 자의 목소리”이며(11), 그녀가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이 죽은 자의 목소리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유령처럼 출몰하는 이 과거의 잔재, 죽은 자의 목소리를 이상적으로 미화하는 애도 관행을 울프는 남성영웅주의의 산물로, 또 다른 폭력과 죽음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간주

하기 때문에 서슴없이 비신화화 한다. 남편을 섬기는 베티의 태도에 대한 화자의 다음 인용문은 과거와의 단절을 피하는 울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 도시의 상인’, 비석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왜 베티 플랜더스가 그를 그렇게 부르기로 결정했는지 모를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기억하듯이, 그는 석 달 동안 사무실 창문 뒤에 앉아 있었을 뿐이고, 그 전에는 말을 조련했으며, 말을 타고 사냥개를 앞세워 사냥을 했으며, 목초지를 얼마간 경작했고, 그러고는 다소 멋대로 행동했고 - 하기는, 남편을 무어라고 부르긴 불러야만 할테니까.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Merchant of this city,’ the tombstone said; though why Betty Flanders had chosen so to call him when, as many still remembered, he had only sat behind an office window for three months, and before that had broken horses, ridden to hounds, farmed a few fields, and run a little wild - well, she had to call him something. An example for the boys. (11)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죽은 자에 대한 애도, 그것도 다분히 허구적으로 이상화시켜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관습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필요에 의해서이다. 울프의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죽음이 아무리 영웅적이고 고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삶에 비할 수 없다는 그녀의 뿌리 깊은 평화주의적 사고의 반영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루퍼트 브룩(Rupert Brooke)이 영국의 지중해 파견군함에 승선했다 모기에 물려 패혈증으로 숨져 그리스 섬에 묻히자, 그를 전쟁영웅으로 추모하는 집단적인 광기 속에서 아무리 그를 영웅시하여도 그의 죽음이 생전의 삶에 대한 관심과 기쁨을 대신할 수 없다고 통박한다.

아무리 고귀하고 적합할지라도, 그가 우리의 이해관계와 걱정을 떠나서 그리스 섬에 묻혀있는 것을 상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

하는 그의 삶에 대한 진지한 호기심, 삶 전반에 대한 반응,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인상을 판단하고 즐기며, 극도로 예리하게 겪고 받아들이는, 매우 감식력이 있으면서도 회의적인 그의 복잡한 수용능력과는 여전히 몹시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But to imagine him entombed, however nobly and fitly, apart from our interests and passions still seems impossibly incongruous with what we remember of his inquisitive eagerness about life, his response to every side of it, and his complex power, at once so appreciative and so sceptical, of testing and enjoying, of suffering and taking with the utmost sharpness the impression of everything that came his way. (“Rupert Brooke” 89)

바로 이러한 비판적 거리감이 『제이콥의 방』을 제이콥을 위한 순수한 애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게 하는 이유이다. 레븐백(Levenback)의 지적처럼 “애도 그 자체는, 울프가 『델러웨이 부인』과 『등대로』에서 특히 제시하게 될 것인 바, 죽음의 실재를 인정하는데 뿐만 아니라 울프의 지속적인 관심사로 보이는 것인 소위 ‘대중적 분위기’(the public mood)를 가능하게 해 있어서 열쇠가 된다”(43). 죽음을 신화화하는 광기적인 소위 말하는 애국심에 찬 ‘대중적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울프가 이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죽음 또한 도처에 산재되어, 특별하다기 보다는 매우 일상적이고 진부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Mourning” 145). 그런 만큼 또한 그 죽음에 대한 애도 역시 순수하지 못하고 비판적이고 풍자적이다. 이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죽음을 영웅시하는 태도를 인정하지 않는 울프의 평화주의적인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울프는 『제이콥의 방』에서 인간이 드러내는, 끝없이 앞으로 돌진하며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소유하려는 도전적인 욕망, 특히 남성들이 주도하는 무분별하고 필연적인 권력에의 의지와 폭력적인 죽음을 관련짓고 있다. 따라서 결코 영웅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자신의 작품에서 영웅적인 인물을 그리지도 않는다. 앞서 성적인 욕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제이콥의 무의식을 통해서 동일

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울프는 작품 속 여성화자의 전지적 시점의 개입을 통해서 맹목적인 생명력, 권력의지와 죽음을 동궤에 놓는다.

만일 당신이 나무 아래 등잔을 놓아두면 숲에 있는 모든 벌레들이 그쪽으로 기어 온다 - 기이한 집합으로, 기어오르고 매달리고 머리를 유리에 부딪치며, 그것들은 아무 목적이 없어보여도 - 무언지 구분별한 것이 그들을 이끈다. 그들이 등잔 주위를 천천히 선회하거나 마치 들어가게 허락을 해 달라는 듯이 맹목적으로 머리를 부딪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싫증났을 때, 가장 멍청해 보이는 커다란 두꺼비가 다른 것들을 밀치며 들어온다. 아, 그런데 저게 무어지? 연발권총의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무언가가 날카롭게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진다. 여파가 퍼져나간다 - 침묵이 부드럽게 소리 위를 흐른다. 나무 - 나무 한 그루가 넘어졌다. 숲 속에서의 어떤 죽음, 그리고 나면 나무 사이의 바람소리는 우울하게 들린다.

If you stand a lantern under a tree every insect in the forest creeps up to it - a curious assembly, since though they scramble and swing and knock their heads against the glass, they seem to have no purpose - something senseless inspires them. One gets tired of watching them, as they amble round the lantern and blindly tap as if for admittance, one large toad being the most besotted of any and shouldering his way through the rest. Ah, but what's that? A terrifying volley of pistol-shots rings out - cracks sharply; ripples spread - silence laps smooth over sound. A tree - a tree has fallen, a sort of death in the forest. After that, the wind in the trees sounds melancholy. (25)

일상적인 평범한 삶의 모습을 맹목적으로 불을 찾아 뛰어드는 불나방들의 사투로 묘사하고 있는 위 인용문에서 이들 사이로 갑자기 밀치고 들어서는 커다란 두꺼비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방 같은 무수한 삶을 희생시키

는 소위 ‘역사적 영웅’이다.

제이콥은 여성을 개에 비유하며 죄만큼이나 추악하다고 보거나 기득권을 향유하는 기존질서에 쉽게 편입하려는 태도로 인해서 화자와 비판적 거리감이 있는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꺼비 같은 인물의 맹목적인 힘이 야기한 전쟁의 희생물이라는 점에서 애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진부한 맹목적인 현실에 대응되는 것이 “그리스 정신”이다(120). 제이콥은 플라톤의 대화편 『파에드로스』(Phaedrus)를 읽으며 언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육체를 넘어서는 것이 가능하다고 느낀다. “붙잡을 수 없는 힘”(137), 즉 맹목적인 생명이지, 권력이지가 인간성을 저하시킨다면, ‘그리스 정신’이야 말로 그 인간성을 보편적인 이성의 질서에 편입시킨다고 제이콥은 생각한다. 제이콥은 아테네로 가서 파르테논 신전을 보며 일상적인 거리의 소음과 지저분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땅을 뚫고 나타난 듯한 정신적 에너지”(130)의 내구력과 수세기의 밤을 견뎌온 광휘를 생각하며 놀라워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그리스 정신’은 그리스 신화를 퍼뜨리기 시작한 가정교사들과 케임브리지의 교육의 산물임을 화자는 지적한다. “우리는 환상 속에서 자라났다”는 화자의 지적을 뒷받침하듯(120),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의 불결한 호텔 웨이터는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투숙객의 육체에만 관심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정신에 관심 갖는 철학자가 아니라 웨이터로 전락해 겉모습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다. 제이콥은 아크로폴리스에서 마라톤(Marathon)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앉아 책을 읽으며 “그리스는 끝났으며, 파르테논은 폐허”라고 생각한다(132). 비록 제이콥이 역사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에 대해 명상하며 중요한 내용을 쪽지에 휘갈겨 써놓는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에서 체험하는 것은 고결한 ‘그리스 정신’이 아니라 산드라 윌리엄스(Sandra Wentworth Williams)란 영국인 중년 여행객에 대한 육체적 욕망이다. “수요일 밤 그가 침대에 누웠을 때 갈고리가 옆구리를 세게 잡아당겼다. 그는 자신이 사랑에 빠진 산드라 웬트워스 윌리엄스를 생각하며 절망적으로 몸부림치며 몸을 뒤척였다”(131).

‘그리스 정신’에 대한 울프의 비판적 애도는 제이콥과 육체관계를 맺은 고아 창녀인 플로린다(Florinda)가 다른 남자의 팔에 매달려 그리스 거리(Greek

Street)를 지나가는 대목에서 절정에 달한다. ‘그리스 정신’은 이제 청순한 꽃과는 관계가 없이 그러한 이름만을 지니는 창녀들이 확보하는 거리로 전략해 있을 뿐이다. 울프가 그리스 정신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130), 그녀는 “그리스인은 수학적 정확성보다 예술적 감각을 선호했다”고 적힌 안내책자에서나 발견되는 ‘그리스 정신’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과거의 유물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한다. 그리스 정신은 이제 애도의 대상으로만 남아있다. “그리고 그(=제이콥)는 문명이라는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고대 그리스인들에 의해 팔목할 만큼 많이 해결이 됐지만, 그렇다고 그 해결책이 우리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제이콥의 생각을 통해서 (131), 울프는 현재 그리스 정신이란 신화적 환상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정신적 이상의 원형으로 간주되어 온 그리스 문명 역시 세계대전이란 물질문명과 폭력적인 지배력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 섬들 사이로 퍼져나가는 폭발음은 영국의 침실에서 잠든 베티 부인에게도 들려온다.

그러나 파르테논의 기둥위에는 붉은빛이 비치고 있었고, 그리스 여인들은 스타킹을 짜면서 때론 소리 질러 아이들을 불러서 아이의 머리에서 벌레를 잡아 내며 열기속의 개천체비처럼 흥겨워 떠들고, 피레우스항의 배들이 대포를 쏠 때까지 싸우고 야단치고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기도 했다.

그 소리가 점점 퍼지다 찾아들어 섬의 해협사이에서 단속적인 폭발음을 내며 굴착해 갔다.

그리스 위로 어둠이 마치 칼날처럼 떨어졌다.

‘대포 소리인가?’ 반쯤 잠이 깬 베티 플랜더스는 침대에서 나와 가장자리가 검은 이파리로 장식된 창가로 갔다.

But the red light was on the columns of the Parthenon, and the Greek women who were knitting their stockings and sometimes crying to a child to come and have the insects picked from its head were as jolly as sand-martins in the heat,

quarrelling, scolding, suckling their babies, until the ships in the Piraeus fired their guns.

The sound spread itself flat, and then went tunnelling its way with fitful explosions among the channels of the islands.

Darkness drops like a knife over Greece.

‘The guns?’ said Betty Flanders, half asleep, getting out of bed and going to the window, which was decorated with a fringe of dark leaves. (154)

여인들의 가정의 일상을 깨뜨리는 전쟁의 포성은 그리스에서도 영국에서도 동시에 들린다. 울프는 『제이콥의 방』에서 이처럼 공간의 응축과 겹침이라는 몽타주 기법을 통하여 세계전쟁의 피해가 도처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이 전쟁의 주된 피해자들은 과부가 된 베티처럼 살아남은 자들이다. 전쟁의 포성 속에서 그녀는 두 아들을 전쟁에 내보낸 어머니로서 잠을 못 이룬다. 제이콥의 방은 그만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그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는 제이콥의 어질러진 방을 보나미와 함께 치우는 베티는 제이콥의 낡은 구두 한 켤레를 내밀며 어떻게 할지 몰라 한다. 주인을 잃은 빈 구두는 반 고흐가 그린 농부의 구두처럼 죽은 자에 대한 기념물이자 일종의 묘석이다. 이곳의 어머니는 구두라는 제유를 통해서 제시된 아들 제이콥의 ‘성격’에 대해 기존의 성격묘사로는 그의 내면을 전할 수 없어 전진공공하고 있는 작중화자의 대변인이기도 하다.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보다는 “부인의 답들이 햇대에서 조금 자리를 옮겼다”(154)는 공간의 이동에 의해서 암시적으로 전쟁의 참상을 제시하는데 그친 작중 화자는 제이콥의 운명에 대해서도 역시 불분명하게 처리하며 시종 자신의 의견을 대입시키던 것과는 달리 침묵으로 끝을 맺는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구체적인 애도의식이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제이콥의 죽음과 같이 끝나는 화자의 내러티브는 그 자체가 그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식이다. 어머니로 하여금 돌아오지 않을 아들의 빈 구두를 들어 보이게 하고, 친구 보나미로 하여금 제이콥을 소리

쳐 부르게 하는 구성은 작품의 시작에서 아처가 제이콥을 애타게 부르는 부르짖음으로 연결되어 죽은 자의 영혼을 현실에서 환기시키는 초혼가의 역할을 한다.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애도행위는 살아남은 자들이 부채감을 씻어내는 일종의 속죄의식이며, 이를 통해서 슬픔에서 벗어나는 정화의식이며 치유 행위이다. 수 로우(Sue Roe)가 주장하듯이 베티 플란더스가 한 켈레의 빈 구두를 들어 올리는 순간 울프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가능성들, 우리가 책을 내려놓은 후에 제이콥을 기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공한다(Sue Roe 38).

IV. 나가는 말

『제이콥의 방』은 울프 자신의 머릿속에 떠돌고 있는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진혼제이다.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과거에 대한 위령제 같은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울프는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글쓰기를 수행하고 있다. 동시다발적 공간처리가 이 작품의 특성이라면, 이 공간은 개인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공존하는 동시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품의 화자는, 남성 중심적 사고를 여전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바로 그러한 체제의 희생물이 되는 제이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의 때 이른 죽음을 작품 속에서 애도하고 있다. 비록 영웅적인 죽음은 인정할 수 없지만, 울프는 화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일상적인 진부한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 울프는 이 작품에서 새로운 현실인식과 태도를 보여줄 새로운 형식의 실험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지적 시점의 일인칭 화자를 등장시키는 등 여전히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 형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러나 분명히 일탈되고 편린화된 현대인의 정신세계를 과거의 그릇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를 통렬하게 의식하고 있는 작가는 이 작품을 기점으로 화자를 등장인물의 의식 속에 잠재워버리는 모더니즘 소설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제이콥의 방을 엿듣고 있는 여러 목소리들은 우리의 내면의식의 방을 배회하고 있는 울프 자신의 목소리이다. 그 방은 미로의 방이며 유리창 가장자리가 검은 이파리로 장식된 베티의 침실처럼 이제는 과거의 목소리를 잠

재워야할 사자의 방이며, 죽은 자의 영혼을 잠재움으로써 살아남은 자들이 단절의 아픔에서 벗어나야할 새로운 삶의 공간이다. 이 소설을 끝마치고 쓴 1922년 7월 26일자 일기에서 그녀는 "마음에 의심 없이 나는 나이 40에 내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하는 방법을 찾았다"(46)고 적고 있는데, 『제이콥의 방』에서 떠도는 목소리를 통하여 울프는 비로소 새로운 글쓰기 방식, 즉 내면적인 것을 외적인 것과 관련하여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셈이다. 이처럼 『제이콥의 방』은 목소리에 관한 새로운 소설이며, 이 목소리는 과거 속에 떠도는 목소리를 불러내는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유령들을 잠재우고 작가 자신만의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기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이콥의 방』은 울프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죽은 자들에 대한 애가이며 치유의 서사이고 동시에 울프의 본격적인 모더니즘 장편소설의 출발점이다.

인 용 문 헌

- Alt, Christina. *Virginia Woolf and the Study of Nature*. Cambridge: Cambridge UP, 2010.
- Da Silva, N Takei. *Modernism and Virginia Woolf*. Windsor: Windsor, 1990.
- Froula, Christine. "The Death of Jacob Flanders." *Virginia Woolf and the Bloomsbury Avant-Garde*. New York: Columbia UP, 2005. 63-84.
- Hussey, Mark. "Woolf: After Lives." *Virginia Woolf in Context*. Ed. Bryony Randall & Jane Goldman. New York: Cambridge UP, 2012. 13-27.
- Levenback, Karen L. *Virginia Woolf and the Great War*. Syracuse: Syracuse UP, 1999.
- Mephram, John. *Virginia Woolf: A Literary Life*. London: Macmillan, 1991.
- _____. "Mourning and Modernism." *Virginia Woolf: New Critical Essays*. Ed. Patricia Clements and Isobol Grandy. London: Vision, 1983. 137-56.
- Minow-Pinkney, Makiko. *Virginia Woolf & the Problem of the Subject*. Brighton: Harvester, 1987.
- Stalla, Heidi. "Woolf and Anti-Semitism: Is Jacob Jewish?" *Virginia Woolf in Context*. Ed. Bryony Randall & Jane Goldman. New York: Cambridge UP, 2012. 219-28.
- Woolf, Leonard. "Virginia Woolf: Writer and Personality." *Virginia Woolf: Interview and Recollections*. Ed. J.H. Stape. London: Macmillan, 1995, 147-51.
- Woolf, Virginia. "The Narrow Bridge of Art." *Collected Essays*. Vol.II. New York: Harcourt, 1967. 218-29.
- _____. "A Sketch of the Past." *Moments of Being*. Ed. Jeanne Schulkind. New York: Harcourt, 1978. 64-137.
- _____. "Mr. Bennett and Mrs. Brown." *The Captain's Death Bed*. New York: Harcourt, 1950. 94-119.

- _____. *Mrs. Dalloway*. New York: Harcourt, 1990.
- _____. *Jacob's Room*. Intro. & Ed. Kate Flint. Oxford: Oxford UP, 1992.
- _____. *Jacob's Room*. Intro. & Ed. Sue Roe. Harmondsworth: Penguin, 1992.
- _____. "Rupert Brooke." *Books & Portraits*. Ed. Mary Lyon. New York: Harcourt, 1978. 85-9.
- _____. *A Writer's Diary*. Intro & Ed. Leonard Woolf. New York: Harcourt, 1973.
- _____. *The Voyage Out*. London: Hogarth, 1975.
- Zwerdling, Alex. "Jacob's Room: Woolf's Satiric Elegy." *Virginia Woolf and the Real World*.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6.

Abstract

Mourning and the Therapeutic Narrative in *Jacob's Room*

Jin, Myunghee

Virginia Woolf's third novel, *Jacob's Room* (1922), is an apparent Bildungsroman dealing with the titular hero's growth and death. However, in this novel of silence and death, nothing is definite and wholesome; everything is fragmentary and indeterminately murky. In this experimental novel Woolf leads us into the room of echoes and mirrors, blurring any clear demarcation between past and present, illusion and reality, certainty and contingency. Jacob's room itself is a metaphor for the novel's ventriloquistic voices only informing some part of Jacob's character: in this room of echoing voices and reflective mirrors the narrative development is circular and overlapping, not linear and progressive.

It is quite significant that this fragmentary narrative of many gaps and flaws in the plot development reflects Woolf's dissatisfaction with the Victorian idea of a well-wrought plot and a fully drawn character development. With the World War I, everything traditional is brought to destruction, ruins and fragments, thereby putting our definite knowledge of things into indeterminacies and contingencies. *Jacob's Room* is the Woolfian elegy to Jacob's death in the World War I and to the traditional Victorian novel at once. In the novel Woolf performs the therapeutic ritual of mourning over the haunting past and the seemingly 'heroic' death of Jacob. Mourning means for Woolf not just the exorcism of separation from the past but also a compromise with the present, however incomplete it might be. In the figurative sense Jacob is the sacrifice on the altar of

modernism, and Woolf breaks the new territory of modernistic writing in *Jacob's Room*. Woolf starts her career as an accomplished modernist writer by paying ritually her tribute and debt to the literary past in the genre of elegy in this novel.

Key Words: Virginia Woolf, *Jacob's Room*, mourning, modernism, therapeutic narrative,
버지니아 울프, 제이콥의 방, 애도, 모더니즘, 치유의 서사

논문접수일: 2014.12.01

심사완료일: 2014.12.15

게재확정일: 2014.12.23

이름: 진명희

소속: 한국교통대학교

주소: (136-753) 서울 성북구 돈암2동 한진아파트 203동 1004호

이메일: mhjin5488@hanmail.net

